



특별기고

(사)한국열관리사협회 신임 비상임 감사 이국범

5년만에 본 협회의 새모습...



지난 4월 26일 협회 중앙본부에서 개최된 제7기 대의원총회는 나에게도 감개무량함과 더불어 참으로 뜻깊은 자리였다. 그동안 안개 속에 부침(浮沈)을 거듭하던 우리 협회는 이 날 총회를 기점으로 백두인 회장 체제 아래 투명한 경영과 비전을 통해 향후 명실상부한 협회로서의 위상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협회 일과는 다소 무심하게 지내온 나에게 대의원 여러분의 선출에 의해 과분하게도 감사의 직분이 주어져 협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협회보 지면을 빌어 그동안의 소회(所懷)를 펴려하고자 한다.

우리 (사)한국열관리사협회는 지난 94년 9월 월간 열관리사 사무실에서 30여명의 발기인 모임을 갖고 (가칭)한국열관리사안전협회 발기대회를 가짐으로써 창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11월 12일 서울 목동의 'KBS88체육관'에서 마침내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열관리사들

의 오랜 소망이었던 협회를 탄생시킨 우리 협회는 이듬해인 95년 3월 7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획득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열관리사 단체로서의 깃발을 드높이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부회장에 피선되었으나 당시 상회으로는 영향력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협회를 위하여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회장직을 스스로 물러나고 비상임 이사로서 초기 협회 운영과 전국조직화에 관여하게 되었다. 초대 상임감사로 선임된 김철민씨는 그 어느 회원보다 협회 일에 열심이었고 감사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였다. 그런데 서주원 회장의 행태는 사사건건 감사에 지적되기 일췌여서 곧 불화(不和)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당시 서주원 회장이 주도하는 이사회를 통해 상임감사직의 사퇴라는 미증유의 사건으로 비화하고 말았으며 얼마 뒤 회원 모집에 가장 열성적이던 이남희 비상임 이사마저도 협회에 해를 끼친다는 명분으로 이사회에 사퇴결의안을 제출하여 나는 협회 운영이 무엇인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작위적인 배후가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과 환멸감을 지울 수 없었던 당시의 나 또한 이사직을 자진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얼마전 직·간접적으로 협회소식을 접해오고 있던 중

에 무엇인가 불미스러운 일로 서주원 전회장이 회장직을 물러나게 되었으며 새로이 백두인 회장이 선임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제7기 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는 뉴스를 듣고 7년 전부터 2년여간 퇴근길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오직 협회만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던 생각이 떠올라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협회의 임원진들의 구성과 또 그분들이 협회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제시와 투명한 운영안을 제시할 것인가 직접 확인하고자 협회로 발길을 향했다. 협회 근처 전철역에 도착했을 때 전철역입구에는 몇몇 낯익은 얼굴을 중심으로 일단의 사람들이 몰려 웅성거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곧이어 서주원 전회장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총회장소인 협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협회에 도착하니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몇몇 안면이 있는 이 사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전철역 앞에서의 의문점은 곧 대의원총회장에게 풀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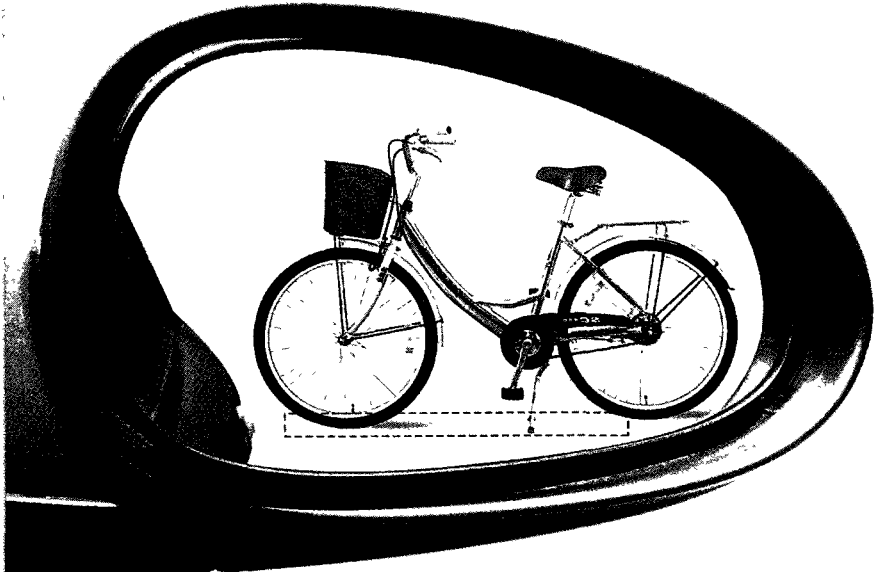
서주원 전회장은 협회의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협회 사무실에서 그 입증서류들을 훔쳐 달아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고소장이 경찰서 및 검찰에 접수되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였다. 열관리사들의 피와 땀인 회비로

열관리사들의 권익신장과 협회 발전을 위해 써 달라고 보내온 돈을 서씨는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개인재산으로 은닉 및 축적까지 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란 말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뒤늦게나마 뜻있는 사람들을 통해 잘못된 일이 바로 잡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임 백두인 회장은 교회 장로의 신분으로 양심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협회를 운영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그러한 확신감으로 이제 나도 무엇인가 협회를 위해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내 스스로 협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갖기 위해 나서게 되었다. 협회 창립 이래 경선에 의한 감사 선임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제 협회 설립 7년째. 아직 우리 협회 앞에는 수 많은 지뢰밭과 가시밭길이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이제 신임 백두인 회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협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희망이 있는 협회의 미래가 창출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번 제7기 대의원총회만큼 의미있는 날도 없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에너지절약의 날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 경제와 환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소비 세계 6위(수입은 4위)입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차량 이용 증가 등으로
가정·상업 등 생활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와 환경을 생각한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필요합니다.

- 재래식 조명기기를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효율성이 높은 가전/사무기기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
- 경제운전과 올바른 운전습관 갖기
- 건강과 환경을 위한 적정 실내온도 유지
- 사용하지 않는 가전/사무기기의 전원차단으로 전력손실 방지

에너지절약의 실천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차를 두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생활속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에너지절약은 시작됩니다

산업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